

韓英子\*  
金顯玉\*

## 人口動態申告資料로 본 韓國의 出産力 變化樣相 및 趨勢

〱	I. 序 言
目	II. 研究目的
	III. 研究資料 및 方法
次	IV. 分析內容
〱	V. 要約 및 結論

---

### I. 序 言

人口變動의 趨勢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人口數 및 人口構造가 社會開發政策의 基礎가 되기 때문이다. 人爲的으로 出産調節이 가능해짐에 따라 人口變動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人口數의 增減 및 人口構造의 變化는 社會全般에 걸쳐 變化를 招來하게 된다. 人間行態의 變化는 쉽게 오지 않으나 일단 變化가 왔을 때는 持續的인 屬性을 지니고 있고, 人口數의 變化는 出産水準의 變化가 일어난 후 一定한 間隔을 두고 그 結果가 나타나기 때문에 人口變化를 展望하는 것은 그 自體 뿐만 아니라 社會政策全般에 걸쳐 매우 重要的인 일인 것이다.

지난 25年동안 人口抑制라는 時代的 要請에 따라 推進되어온 家族計劃事業은 그동안의 社會經濟發展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出産力低下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5年 현재 合計出産率은 人口代置水準인 2.1로 低下되었다. 그러므로 人口代置水準에 이른 지금 人口變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出産力의 趨勢를 把握하여 앞으로의 人口政策의 方向 및 施策을 決定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지금까지 出生力에 관한 實態는 定期的으로 實施되는 調査 또는 센서스資料를 利用하여 分析되어 왔으며 人口動態 申告資料를 利用한 出産力分析은 많지 않았다.

人口統計資料에는 同一한 일자에 全人口를 헤아리는 센서스와, 標準期間인 1年을 基準으로 한 歷年間에 일어난 動態事象의 發生頻度에 대한 記錄, 그리고 標本調査를 통해 얻게되는 情報가 있다. 動態事象이라함은 出生, 死亡, 人口移動, 結婚, 離婚등이 申告制度에 의해 記錄되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研究員.

는 것을 말한다. 센서스와 人口動態統計의 차이점은 파악하려는 事實自體의 特性에 있는데, 前者는 사람들에 관한 記錄이고 後者는 事象에 관한 記錄이다.

動態申告資料의 利點은 첫째, 全國水準의 資料가 매해 수집되기 때문에 항상 最近資料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둘째, 특별하게 分析을 목적으로 따로 資料蒐集을 하지 않으므로 費用이 들지 않는다는 점, 셋째, 다른 資料에서 얻을 수 없는 歷年單位의 動態事象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動態申告資料를 利用하는데는 申告가 漏落될 수 있다든가, 申告內容이 왜곡될 수 있다든가, 申告時期가 遲延될 수 있다든가 하는 制約點이 있다. 그러나 人口統計는 어떤 資料를 使用하든지 制限點이 있게 마련이므로 그 缺陷을 감안하여 使用할 경우 意味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動態申告率은 最近에 올수록 점점 높아지고 資料의 質도 向上되어 왔다. 出生의 當年申告比率은 1970~75年間에 50퍼센트 水準이었던 것이 最近 1984年 이후에는 92퍼센트 水準으로 계속 增加하여 왔다.<sup>1)</sup> 1989년에 全國民을 대상으로 醫療皆保險이 實施될 경우 자신利益을 위해 動態申告率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보다 신뢰성있는 動態申告資料를 生産하기 위한 研究 및 申告資料의 더욱 활발한 分析活用이 요구된다.

## II. 研究目的

本 研究는 人口變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出生力의 變化趨勢를 파악하여 國家人口政策의 樹立을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함과 出生力實態파악을 위해 人口動態資料活用의 필요성을 浮刻시킴이 그 目的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申告된 年間出生兒의 母의 年齡에 따른 分布 및 趨勢를 알아본다.

둘째, 申告된 年間出生兒의 出生順位別 分布 및 趨勢를 알아본다.

셋째, 申告된 年間出生兒의 母의 年齡과 出生順位에 따른 分布 및 趨勢를 알아본다.

## III. 研究資料 및 方法

本 研究는 경제기획원이 매해 발행하는 人口動態統計를 利用하여 出生力推移를 分析한 것

1) 金日炫, “韓國의 人口成長 推移와 展望”,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세미나,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이다. 즉 1972~1985年 期間中の 出産力分析을 위해 人口動態統計 1982~1986年度分을 利用하였다. 人口動態遲延申告가 10년까지 累積集計되므로 가능한 한 最近에 刊行된 자료를 活用하였는데, 1972年の 出産力은 1982년에 출판된 자료에서, 1973年分은 1983年 자료에서, 1974年分은 1984年 자료에서, 그리고 1975~1984年分은 1985年 자료에서 분석하였으며, 그리고 1985年分은 1986年 자료에서 분석하였는데 지연신고分이 가산 안된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sup>2)</sup>

1970年과 1971年の 動態資料가 1980年 人口動態統計에 포함되긴 하였으나 同年度分 資料의 質을 검토한 結果, 分析에 어려움을 주어 그 두해 것은 分析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에 주택센서스 1970, 1975, 1980年 및 1985年度 자료를 利用하였다.<sup>3)</sup>

그동안 이루어진 出産力 分析은 대부분 有配偶可妊女性을 중심으로 한 分析이었다. 즉 配偶者가 있는 婦人의 出産水準의 變化를 보는 것이었다. 本 研究에서는 出生兒를 중심으로 出産力趨勢를 分析하였다. 出生兒數는 個個 有配偶 可妊女性의 出生水準과 各 年齡別 有配偶可妊女性數의 두가지 變數가 반영된 결과이다. 動態申告資料로 부터 出産力趨勢를 比較하는데 있어서 出生兒數를 가지고 직접 比較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해마다 申告率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는 當該年度 出生兒의 出生順位別 퍼센트分布와 母年齡別 퍼센트 分布의 變化樣相을 時系列的으로 比較해 보았다. 本 分析에서는 15~50세 婦人의 出産을 포함하였는데 실제로 40代 이후 婦人의 出産은 그 數가 극히 작아 다른 調査資料와의 比較에 있어서 큰 問題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本 資料에서의 問題점은 出生遲延申告, 母의 年齡과 出生順位등 分析하고자 하는 變數의 不明, 出生兒의 早期死亡時 未申告, 死産과 早期死亡과의 不明한 關係, 未婚母에서 태어나는 出生兒의 未登錄등이다.

出生兒중 出産順位와 母年齡이 不明인 경우는 分析에서 제외시켰으나 不明의 比率이 1972~1985年 期間中 各各 最高 0.2퍼센트, 0.4퍼센트 미만이므로 分析結果에 影響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出生初期에 死亡하여 出生으로도 死亡으로도 申告되지 않을 수가 있고 出生後 곧 死亡하였을 경우 死産과 혼동되어 出生으로 申告가 안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精確한 出生分析에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다. 그러나 死亡力의 變化는 出産力의 變化보다는 완만하므로 위 問題点등이 出産力趨勢 比較에 큰 影響을 미치지 는 않으리라고 본다.

本 研究에서의 分析方法은 百分率을 利用한 記述的 方法을 使用하였다.

---

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동태통계(인구동태신고)에 의한 집계, 1982~1986.

3)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1970, 1975, 1980, 1985.

#### IV. 分析内容

##### 1. 母年齢別 出生兒 分布

〈表 1〉과 〈그림 1〉은 出生兒의 母의 年齢에 따른 分布를 보여준다. 當該年度 出生兒 중 15~19세의 母에서 태어난 出生兒의 比率은 最低 1985年度の 2.8퍼센트에서 最高 1977年度の 4.6퍼센트로 변화폭이 좁으나, 20~24세의 母에서 태어난 出生兒의 比率은 1972年の 25.8퍼센트에서 꾸준히 增加하여 1984년에는 40.7퍼센트에 이르렀고 1985년에는 37.5퍼센트로 약간 減少하였다. 25~29세의 母에서도 1972~1985年 期間中 34.4퍼센트에서 49.2퍼센트로 14.8 퍼센트 포인트가 增加되었으며, 특히 1985년에는 出生兒의 半 정도가 25~29세의 母에서 出生하였다. 따라서 1985년에는 86.7퍼센트의 出生이 20代 婦人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家族計劃과 母子保健事業이 20代 年齢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意味한다. 한편 30~34세의 母에서 태

**Table 1. Percent Distribution of Births by Age of Mother, 1972~1985**

當該年度 出生兒의 母年齢別 百分率 分布, 1972~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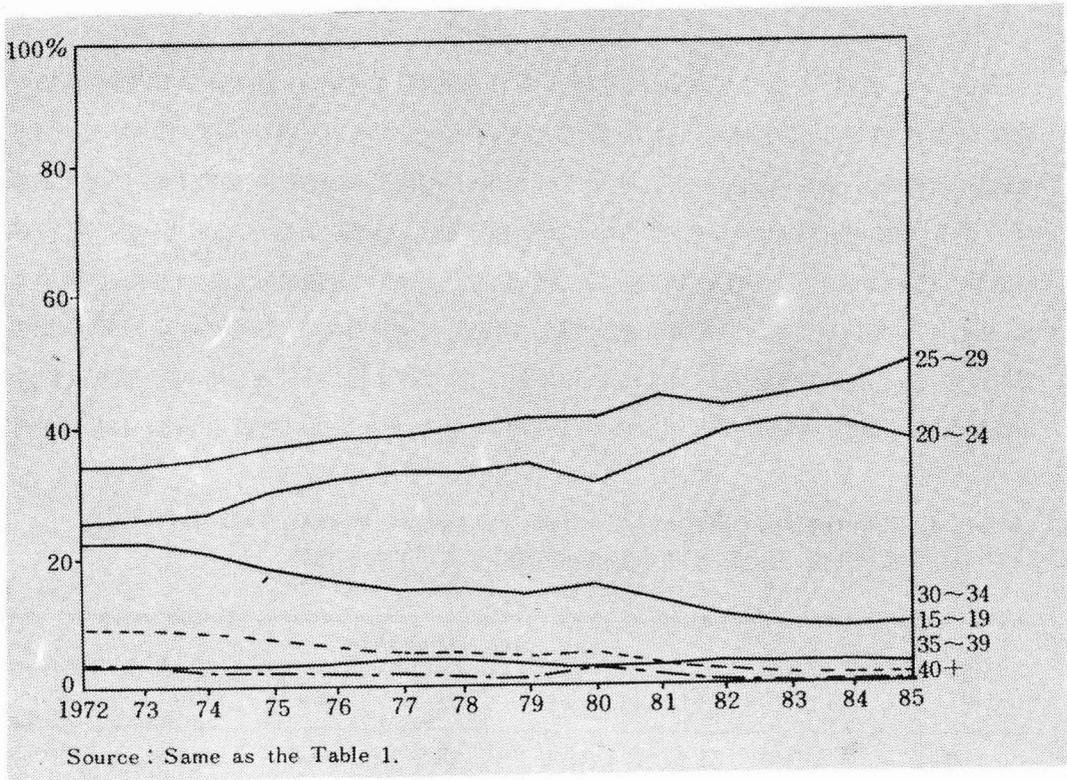
(Unit : %)

Year	Age of Mother						Total
	15~19	20~24	25~29	30~34	35~39	40+	
1972	3.5	25.8	34.4	23.0	9.5	3.8	100.0
1973	3.6	26.1	34.7	22.7	9.2	3.7	100.0
1974	3.7	27.7	35.9	21.4	8.3	3.0	100.0
1975	3.4	30.6	37.5	18.5	7.2	2.8	100.0
1976	4.0	32.6	38.2	16.4	6.4	2.4	100.0
1977	4.6	33.7	38.6	15.1	5.8	2.2	100.0
1978	4.1	33.2	40.1	15.4	5.3	1.9	100.0
1979	3.6	34.5	41.6	14.7	4.2	1.4	100.0
1980	3.0	31.6	41.9	15.9	5.1	2.5	100.0
1981	3.0	35.2	44.7	13.0	3.1	1.0	100.0
1982	3.5	39.7	43.0	10.7	2.3	0.8	100.0
1983	3.2	40.7	44.3	9.3	1.9	0.6	100.0
1984	3.1	40.7	46.0	8.3	1.5	0.4	100.0
1985	2.8	37.5	49.2	8.8	1.4	0.3	100.0

Source : NBOS, EPB, *Annual Report on the Vital Statistics*, 1982~1986.

Figure 1. Percent Distribution of Births by Age of Mother, 1972~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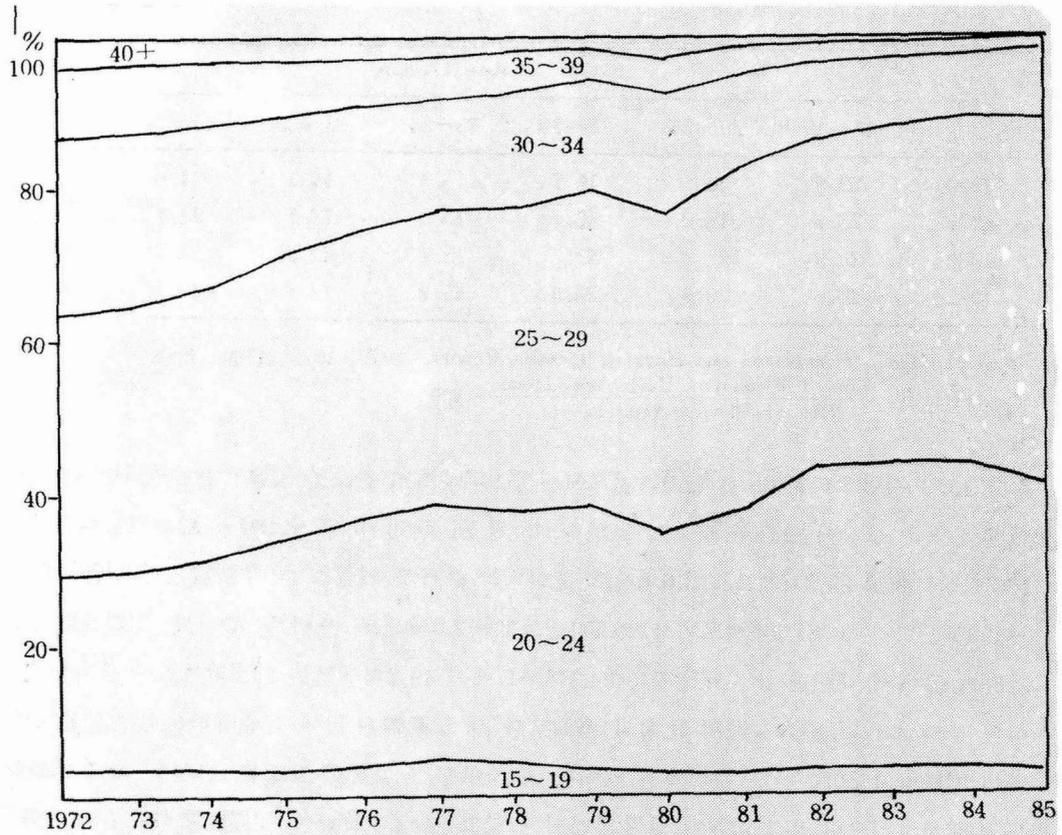
當該年度 出生兒의 母年齡別 分布, 1972~1985



어난 出生兒의 比率은 同期間 中 23.0퍼센트에서 8.8퍼센트로 14.2퍼센트 포인트가 감소되었으며, 35~39세의 年齡群에서도 9.5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8.1퍼센트 포인트가 減少되었고, 40세 以上の 年齡群에서는 3.8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3.5퍼센트 포인트가 減少되었다. 따라서 年間 出生兒 中 30세 以上の 婦人에서 出生한 比率은 1972年의 36.3퍼센트에서 1985년에는 10.5 퍼센트로 減少하였으며 특히 35세 以上の 婦人에서 出生한 比率은 1985년에는 1.7퍼센트에 불과하다.

各 年齡群의 出生數는 그 年齡群의 女性數, 結婚率 및 出產行態의 影響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當該年度 出生兒 中 20代 年齡層의 母에서 出生하는 比率이 점점 增加하는 반면 30代 이후 연령층의 母에서 出生하는 비율이 점점 減少하는 추세는 <表 2>에서 보듯이 人口構造上 1970年代 이후 15~44세 可妊女性 中 20代 연령층의 비율이 增加하고 30代 이후 연령층 女性의 比率이 減少하는 것도 그 이유의 一部라고 할 수 있다. 즉, 20~24세 年齡女性의 比率은 1970

Figure 2. Cumulative Percent Distribution of Births by Age of Mother  
 當該年度 出生兒의 母年齡別 累積分布



Source : Same as the Table 1

年度에 18.5퍼센트이었던 것이 1980年度에는 22.2퍼센트로 增加되었다가 1985年度에는 20.5퍼센트로 약간 減少하였으며, 25~29세 年齡女性의 比率은 1970年度에 16.7퍼센트에서 1985年度에서 20.3퍼센트로 增加되었다. 반면에 30~34세 年齡女性의 比率은 1970年 16.3 퍼센트에서 1980년에는 13.7퍼센트로 줄었다가 1985年度에는 15.2퍼센트로 약간 增加하였으며 35~39세 年齡女性의 比率은 1970年度の 14.1퍼센트에서 1985年度에는 12.5퍼센트로 減少되었다.

그러나 1970年에서 1985年 期間中 20~24세 女性의 比率은 18.5퍼센트에서 20.5퍼센트로 2.0퍼센트 포인트만 증가한 반면, 出生兒 中 20~24세 母에서 태어난 出生兒比率은 1972年の 25.8퍼센트에서 1985年の 37.5퍼센트로 11.7퍼센트 포인트나 증가했으며, 同 年齡群의 有配偶

**Table 2. Distribution of Women in the Reproductive Period by Age Group**  
 可妊女性の年齡群別 分布

(Unit : %)

Year	Age Group						Total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1970	22.8	18.5	16.7	16.3	14.1	11.6	100.0
1975	25.8	19.2	15.7	13.9	13.7	11.7	100.0
1980	22.9	22.2	17.2	13.7	12.3	11.7	100.0
1985	20.8	20.5	20.3	15.2	12.5	10.7	100.0

Source : EPB,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1970, 1975, 1980, 1985.

Note : Rate =  $\frac{\text{No. of Women in Each Age Group}}{\text{No. of Women Aged 15~44}} \times 100$

률이 1970~1985年 期間 中 42.0퍼센트에서 35.9퍼센트로 감소한 것을<sup>4)</sup> 감안한다면 同 연령층의 출산력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同 期間 中 25~29세 年齡群의 여성비율은 16.7퍼센트에서 20.3퍼센트로 3.6퍼센트 포인트의 증가가 있었고, 同 年齡群의 有配偶率은 1970~1985년 기간 中 84.1퍼센트에서 86.1퍼센트로<sup>5)</sup> 2.0퍼센트 포인트 증가만 있었으나 同 年齡群의 母에서 태어난 出生兒比率은 34.4퍼센트에서 49.2퍼센트로 14.8퍼센트나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20代 年齡群女性の 比率의 增加보다 同 年齡群의 母에서 출생하는 出生兒比率이 더 크게 增加하고 30代 이후 부인에서 태어난 출생아수가 급격히 감소한 사실은 최근 結婚年齡은 停滯하고있으나 出生間隔이 점점 빨라지고 있고<sup>6)</sup> 少子女出産後 早期斷産하는 出産行態<sup>7)</sup>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1976年 卵管手術이 政府事業으로 導入된 이후 對象者들의 不妊手術에 대한 높은 選好度<sup>8)</sup>와 受容性이 이러한 變化를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된다.

4) 金柔敬, 崔仁鉉, “結婚力 變動과 出産力”, 한국의 출산력 변동과 전망,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p.90.

5) 金柔敬, 崔仁鉉, 前掲書, p.90.

6) 李時伯, “한국부인의 出生間隔에 대한 分析”, 한국의 출산력 변동과 전망,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p.279.

7) 趙南勳, “避妊實踐水準과 受容性”, 한국의 출산력 변동과 전망,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p.429.

8) 趙南勳, 前掲書, p.426.

## 2. 出生順位別 出生兒 分布

〈표 3〉 및 〈그림 3,4〉는 出生順位別 出生兒分布를 보여준다. 出生兒 中 첫째아의 비율은 1972年 26.7퍼센트에서 1985년에는 51.4퍼센트로 24.7퍼센트 포인트가 增加되었으며, 同 期間 中 둘째아의 비율은 23.7퍼센트에서 38.3퍼센트로 14.6퍼센트 포인트가 增加되었다. 따라서 첫째아와 둘째아를 합한 비율이 同 期間 中 50.4퍼센트에서 89.7퍼센트로 增加되었는데 이는 말할 것도 없이 그동안의 急速한 出生力 減少의 結果이다. 반면 셋째아의 비율은 1972年の 18.6퍼센트에서 1985年の 7.3퍼센트로 11.3퍼센트 포인트 減少되었으며, 넷째아 이상의 비율은 同 期間 中 3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무려 28.0퍼센트 포인트가 감소되었다. 同 期間 中 넷째아 이상의 出生比율이 급격히 減少하였고, 첫째아의 出生比率이 급격히 增加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1980年代 初般의 급격한 변화는 1981年 政府에 의해 公布, 推進되어온 人口 增加抑制 對策과 1983년 부터 여러 社會支援施策을 통한 한 자녀 政策의 영향으로 보인다.

Table 3. Percent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1972~1985

當該年度 出生兒의 出生順位別 分布, 1972~1985

(Unit : %)

Year	Birth Order				Total
	1	2	3	4 +	
1972	26.7	23.7	18.6	31.0	100.0
1973	28.0	24.5	18.1	29.4	100.0
1974	31.1	25.5	17.8	25.6	100.0
1975	34.0	27.6	17.3	21.1	100.0
1976	34.4	29.3	17.5	18.8	100.0
1977	35.9	30.7	17.2	16.2	100.0
1978	38.0	31.6	16.8	13.2	100.0
1979	38.5	33.2	17.1	11.2	100.0
1980	39.5	31.6	16.8	12.1	100.0
1981	40.9	33.7	16.5	8.9	100.0
1982	41.8	35.8	14.8	7.6	100.0
1983	44.7	38.7	11.1	5.5	100.0
1984	49.5	38.5	8.3	3.7	100.0
1985	51.4	38.3	7.3	3.0	100.0

Source : NBOS, EPB, *Annual Report on the Vital Statistics*, 1982~1986.

Figure 3. Percent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1972~1985

當該年度 出生之 出生順位別 分布, 1972~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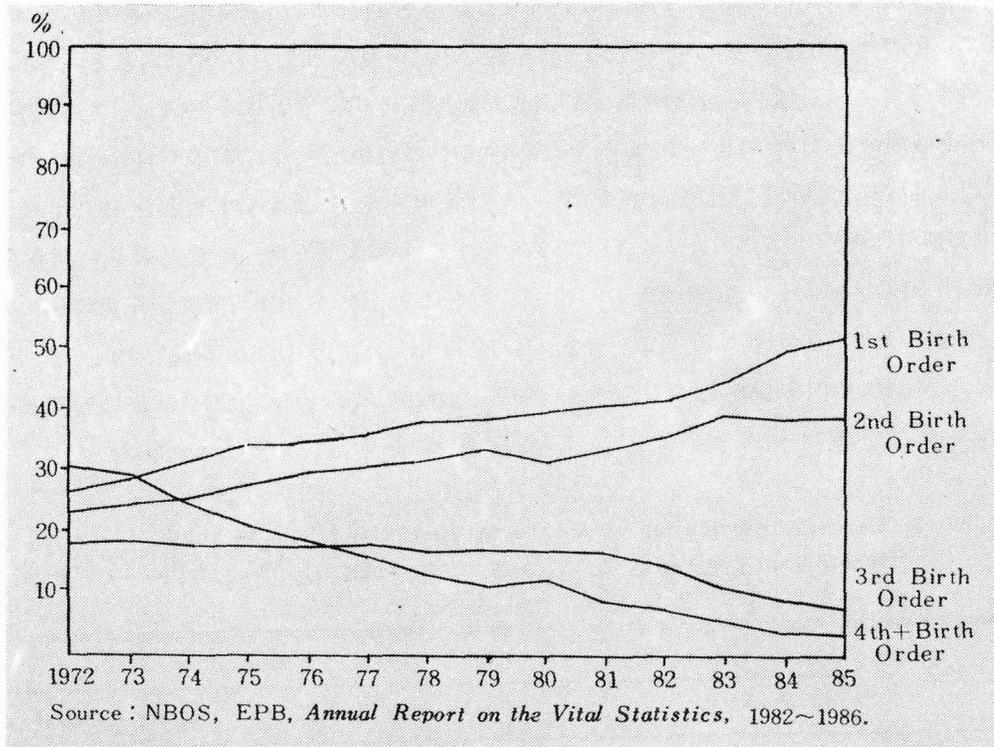


Table 4. Percent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by Country in 1985

1985年度 出生兒之 出生順位 및 國家別 分布

(Unit : %)

Birth Order	Korea	Japan	China	Hong Kong	Singapore*	Norway
1st	51.4	42.1	50.2	45.1	45.5	43.4
2nd	38.3	39.3	30.1	35.3	35.4	34.8
3rd	7.3	15.7	19.7	13.9	14.2	15.8
4th+	3.0	2.9		5.7	4.9	5.9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st & 2nd	89.7	81.4	80.3	80.4	80.9	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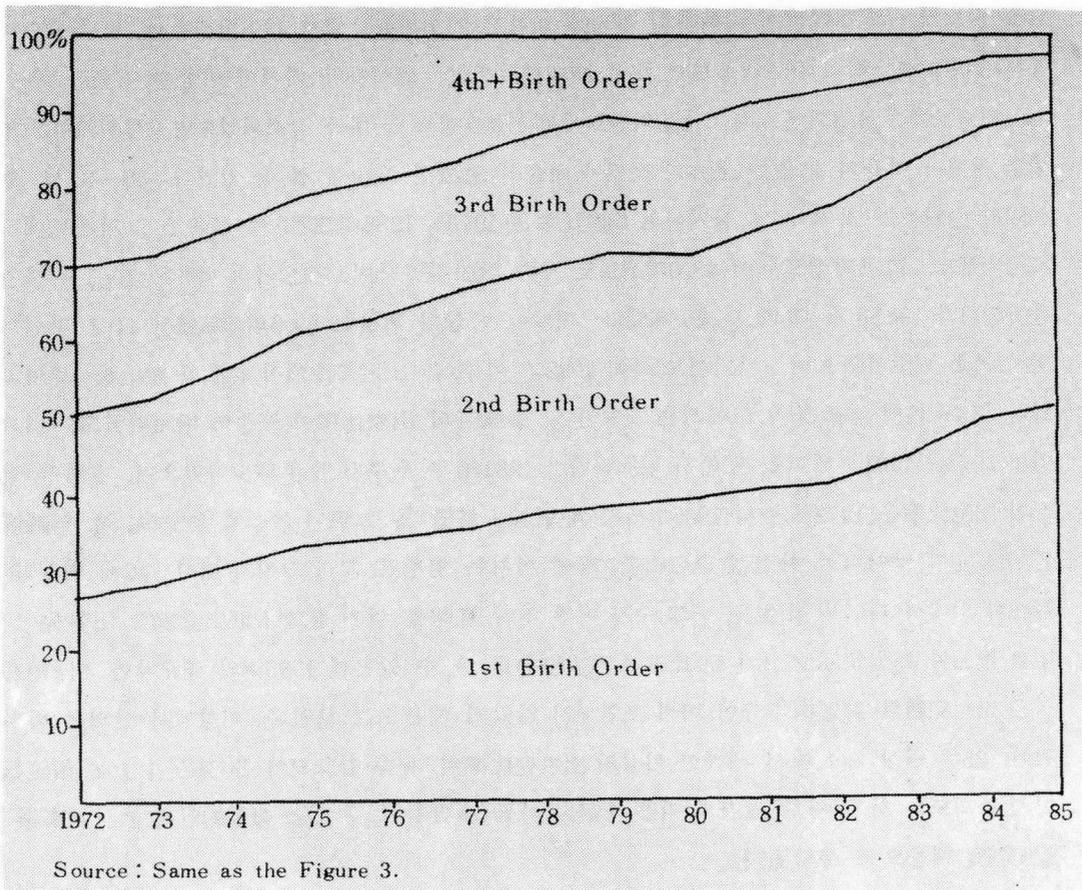
Note : \*Rate of 1986

Source : 1) EPB, *Korea Statistical Yearbook*, 1986.

2) Unpublished data presented during the "Training Workshop on FP Policy and Programme Management" held by KIPH in 1987.

〈表 4〉는 1985年度 出生順位別 出生兒 比率을 各 國家別로 比較해 본 것이다. 韓國의 첫째 아와 둘째아 비율은 各各 51.4퍼센트 및 38.3퍼센트로 日本의 42.1퍼센트 및 39.3퍼센트와 中共의 50.2퍼센트 및 30.1퍼센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 Cumulative Percent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1972~1985  
當該年度 出生의 出生順位別 累積分布, 1972~1985



### 3. 母年齡別, 出生順位別 出生兒 分布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最近에 올수록 年間 出生兒 中 低順位出生兒의 比率이 높아지고 있는데 1972~1985年 期間동안의 變化를 母의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表 5〉와 〈그림 5〉

이다. 15~19세 年齡群의 母에서는 實際로 出生件數가 적었으며 各 年度別로 別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20~24세 年齡群에서는 첫째아 出生比率은 同 期間 中 56.2퍼센트에서 67.8퍼센트로 11.6퍼센트 포인트 增加했으며, 둘째아는 32.2퍼센트에서 29.0퍼센트로 약간 減少되었고, 셋째아 및 넷째아의 出生이 9.5퍼센트에서 2.9퍼센트로, 2.1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상당히 減少되었다. 한편 25~29세 年齡群의 母에서는 同 期間 中 큰 폭의 變化를 보였는데 全體 出生兒 中 同 年齡群의 母에서의 出生比率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出產水準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본다. 同 年齡群의 母에서의 첫째아 비율은 21.6퍼센트에서 43.6퍼센트로, 둘째아의 비율은 33.5퍼센트에서 46.2퍼센트로 대폭 增加되었으며, 셋째아와 넷째아 이상의 비율은 各各 28.1퍼센트에서 8.3퍼센트로, 16.8퍼센트에서 1.9퍼센트로 대폭 감소되었으며, 특히 1982年 이후 첫째아 비율의 急激한 上昇과 셋째아 비율의 急激한 減少를 볼 수 있었다. 30~34세 年齡群의 母에서는 첫째아 및 둘째아의 出產比率은 1972~1985年 期間 中 各各 5.7 퍼센트에서 22.1퍼센트, 11.5퍼센트에서 43.0퍼센트로 계속 增加하였으며, 셋째아의 비율은 1981年 까지 증가되다가 1981年을 고비로 減少되었다. 넷째아 이상의 비율은 59.6퍼센트에서 41.1 퍼센트까지 계속 減少하였으며, 여기서도 특히 1982年 이후 各 出產順位에서 急激한 變化를 보이고 있다. 35~39세 年齡群의 母에서는 첫째아 및 둘째아의 出產比率이 꾸준히 增加하였고, 셋째아의 比率은 1981年까지는 꾸준히 增加하다가 1981年 이후부터 약간 減少하였으며, 넷째아 이상의 出生比率은 1972년부터 1985년까지 계속 減少하였다. 그러나 最近에 올수록 同 年齡群의 出產力이 낮아져서 사실상 全體出產水準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가 않다. 40세 이상 年齡群의 母에서 태어난 出生兒는 그 수가 아주 적어 意味를 찾기 힘드나 低出產順位 出生兒 比率의 增加와 高出產順位 出生兒 比率의 減少趨勢를 볼 수 있는데 1985年의 불규칙한 樣相은 적은 出生兒數와 遲延申告分이 아직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5세 이상 婦人에서 셋째아 이상의 出生兒比率이 계속 감소되어 온 것은 少子女 價値觀이 定着되도록 하기 위한 政府의 各種 施策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效果的인 家族計劃事業 管理制度 때문으로 생각된다.

Table 5. Percent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by Age of Mother, 1972~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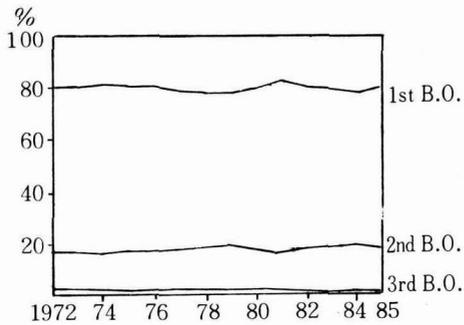
當該年度 出生兒의 母年齡 및 出生順位別 分布, 1972 ~ 1985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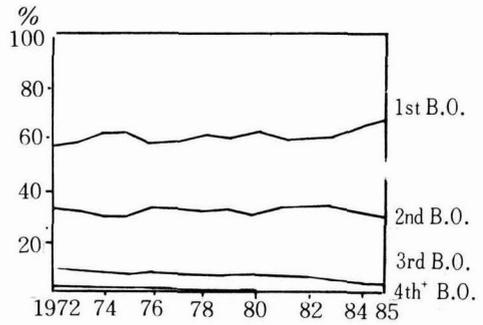
Age of Mother	15~19					20~24					25~29					30~34					35~39					40+					Total				
	1	2	3	4+	total	1	2	3	4+	total	1	2	3	4+	total	1	2	3	4+	total	1	2	3	4+	total	1	2	3	4+	total	1	2	3	4+	total
1972	81.2	16.3	2.1	0.4	100.0	56.2	32.2	9.5	2.1	100.0	21.6	33.5	28.1	16.8	100.0	5.7	11.5	23.2	59.6	100.0	3.7	5.3	8.8	82.2	100.0	3.9	4.4	6.4	85.3	100.0	26.7	23.7	18.6	31.0	100.0
1973	81.5	16.1	2.0	0.4	100.0	58.1	31.3	8.6	2.0	100.0	23.4	35.3	26.9	14.4	100.0	5.9	12.4	23.7	58.0	100.0	3.6	5.5	9.1	81.8	100.0	3.7	4.4	6.3	85.6	100.0	28.0	24.5	18.1	29.4	100.0
1974	81.9	15.7	2.0	0.4	100.0	61.6	29.4	7.5	1.5	100.0	25.5	36.5	25.6	12.4	100.0	6.7	14.2	25.4	53.7	100.0	4.1	6.1	10.0	79.8	100.0	4.5	4.8	6.5	84.2	100.0	31.1	25.5	17.8	25.6	100.0
1975	81.3	16.4	1.9	0.4	100.0	62.2	29.7	6.8	1.3	100.0	26.8	38.2	24.5	10.5	100.0	8.3	16.1	26.6	49.0	100.0	5.4	7.7	11.6	75.3	100.0	5.3	5.5	7.3	81.9	100.0	34.0	27.6	17.3	21.1	100.0
1976	81.0	16.5	2.0	0.5	100.0	58.6	32.2	7.7	1.5	100.0	26.3	38.3	24.7	10.7	100.0	9.2	17.4	27.0	46.4	100.0	6.2	8.3	12.4	73.1	100.0	5.6	6.2	7.3	80.9	100.0	34.4	29.3	17.5	18.8	100.0
1977	79.7	17.8	2.1	0.4	100.0	58.5	32.5	7.7	1.3	100.0	27.1	39.6	23.9	9.4	100.0	9.7	20.1	28.7	41.5	100.0	6.7	9.3	12.8	71.2	100.0	6.5	7.0	7.9	78.6	100.0	35.9	30.7	17.2	16.2	100.0
1978	79.6	18.0	2.1	0.3	100.0	60.5	31.5	6.9	1.1	100.0	30.9	40.4	21.5	7.2	100.0	10.9	22.6	31.5	35.0	100.0	7.9	11.3	14.7	66.1	100.0	7.1	7.9	8.4	76.6	100.0	38.0	31.6	16.8	13.6	100.0
1979	78.6	19.1	2.0	0.3	100.0	60.1	32.0	6.9	1.0	100.0	30.8	41.5	21.3	6.4	100.0	10.9	24.4	33.6	31.1	100.0	8.8	12.3	16.7	62.2	100.0	8.5	8.9	9.3	73.3	100.0	38.5	33.2	17.1	11.2	100.0
1980	80.6	17.1	2.0	0.3	100.0	62.6	29.9	6.6	0.9	100.0	34.4	40.0	19.8	5.8	100.0	13.0	24.6	33.1	29.3	100.0	11.2	13.2	18.4	57.2	100.0	10.6	9.5	10.0	69.9	100.0	39.5	31.6	16.8	12.1	100.0
1981	82.8	15.6	1.4	0.2	100.0	60.0	32.5	6.6	0.9	100.0	32.8	41.8	19.9	5.5	100.0	11.9	25.2	34.4	28.5	100.0	9.9	14.4	20.4	55.3	100.0	9.3	11.3	11.5	67.9	100.0	40.9	33.7	16.5	8.9	100.0
1982	80.9	17.7	1.3	0.1	100.0	60.0	32.7	6.4	0.9	100.0	31.5	43.9	19.1	5.5	100.0	12.2	26.9	32.2	28.7	100.0	10.7	15.8	20.0	53.5	100.0	9.4	10.9	11.6	68.1	100.0	41.8	35.8	14.8	7.6	100.0
1983	80.2	18.6	1.1	0.1	100.0	61.4	33.2	4.7	0.7	100.0	34.8	47.3	13.9	4.0	100.0	15.4	34.0	27.0	23.6	100.0	13.7	19.5	19.8	47.0	100.0	12.1	12.8	11.4	63.7	100.0	44.7	38.7	11.1	5.5	100.0
1984	79.7	19.0	1.2	0.1	100.0	64.8	31.3	3.5	0.4	100.0	40.5	46.9	9.8	2.8	100.0	19.8	39.1	22.8	16.3	100.0	17.6	21.5	18.2	42.7	100.0	14.2	29.1	25.2	31.5	100.0	49.5	38.5	8.3	3.7	100.0
1985	81.7	17.2	1.0	0.1	100.0	67.8	29.0	2.9	0.3	100.0	43.6	46.2	8.3	1.9	100.0	22.1	43.0	20.8	14.1	100.0	19.4	23.4	18.9	38.3	100.0	15.0	15.8	13.4	55.8	100.0	51.4	38.3	7.3	3.0	100.0

Source : NBOS, EPB, *Annual Report on the Vital Statistics*, 1982~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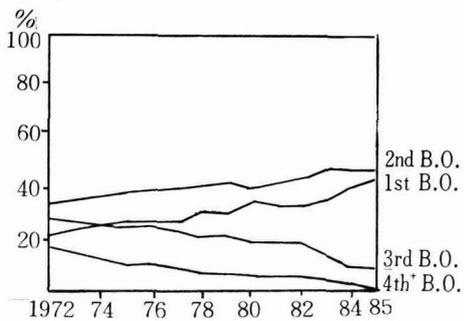
**Figure 5. Percent Distribution of Births by Birth Order and by Age of Mother**  
 當該年度 出生の 母年齡別, 出生順位別 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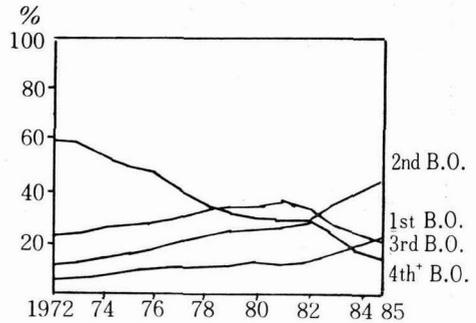
Birth to the Mother Aged 1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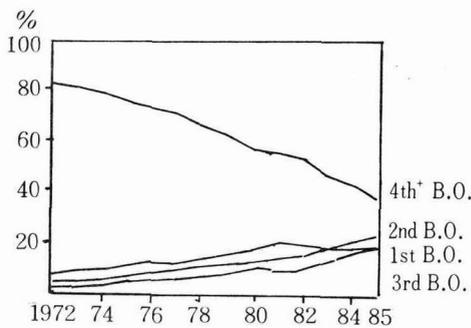
Birth to the Mother Aged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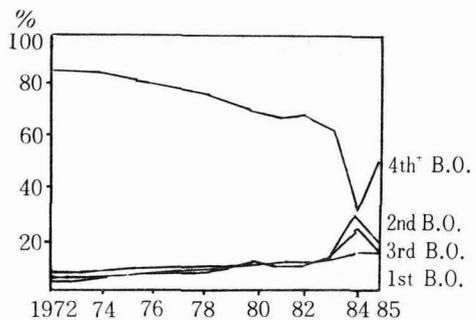
Birth to the Mother Aged 25~29



Birth to the Mother Aged 30~34



Birth to the Mother Aged 35~39



Birth to the Mother Aged 40+

Source : Same as the Table 5.

## V. 要約 및 結論

經濟企劃院이 發行하는 人口動態統計資料를 利用하여 1972~1985年間の 出産力の 變化를 分析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年間 出生兒分布趨勢를 母의 年齡別로 살펴보면 過去에는 出生이 母의 各 年齡層에 넓게 分散되어 發生했으나 最近에 올수록 特定年齡集團, 즉 20代에 限定되어 發生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1972년에는 年間 出生兒의 60.2퍼센트가 20代의 母에서 태어나고 30代 以後의 母에서도 36.3퍼센트나 태어났으나, 1985년에는 年間 出生의 86.7퍼센트가 20代의 母에서 發生하며 30代 以後는 10.5퍼센트에 불과하다.

2. 年間 出生兒分布趨勢를 出生順位別로 살펴보면 첫째아의 比率은 1972年 26.7퍼센트에서 1985년에는 51.4퍼센트로 24.7퍼센트 포인트가 增加되었으며, 同期間 中 둘째아의 比率은 23.7퍼센트에서 38.3퍼센트로 14.6퍼센트 포인트가 增加되었다. 따라서 첫째아와 둘째아를 합한 比率이 同 期間 中 50.4퍼센트에서 89.7퍼센트로 增加되었다.

3. 出生順位別 出生兒分布를 母의 年齡에 따라 살펴보면, 15~19세 의 母에서는 1972~85年 期間 中 별 變化가 없었으며, 20~24세 母에서는 同 期間 中 첫째아는 56.2퍼센트에서 67.8퍼센트로 增加했으며 둘째아는 32.2퍼센트에서 29.0퍼센트로 약간 줄고, 셋째아와 넷째아 이상은 各各 9.5퍼센트에서 2.9퍼센트, 2.1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減少되었다. 25~29세 母에서는 특히 첫째아와 둘째아의 대폭 增加와 (21.6%에서 43.6%, 33.5%에서 46.2%) 셋째아와 넷째아 이상의 急激한 減少를 볼 수 있었다. (28.1%에서 8.3%, 16.8%에서 1.9%) 30~34세 의 母에서도 첫째아와 둘째아가 各各 5.7퍼센트에서 22.1퍼센트, 11.5퍼센트에서 43.0퍼센트로 急增하고 셋째아는 1972年 23.2퍼센트에서 1981년에는 34.4퍼센트로 增加되었으나 다시 20.8퍼센트로 減少되었다. 넷째아 以上 比率은 1972~85年 期間 中 59.6퍼센트에서 14.1퍼센트로 대폭 減少되었다. 또한 35~39세 및 40세 以上의 母에서도 低出生順位 出生兒의 增加와 高出生順位 出生兒의 減少를 볼 수 있었다.

結論的으로 本 研究를 통해 파악한 것은 最近에 올수록 첫째, 年間 出生이 20代 年齡의 母로 集中되며, 둘째, 低順位 出生兒比率이 높아지는 反面, 高順位 出生兒 比率은 적어지는데 이는 各 年齡別로 共通의 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事實은 全體的으로 出産水準이 낮아진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趨勢는 특히 1980年代 以後 더욱 顯著하다. 1985年 資料를 볼때 中共, 日本등 諸國과 비교하여 年間 出生兒 中 低順位 出生比率이 우리나라가 더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出産水準의 展望을 보여주는 하나의 指標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現象은 물론 人口抑制라는 時代的 要求에 副應한 우리나라 家族計劃事業 成功의 結果이며, 특히 1981年末 第5次 經濟社會開發 5個年 計劃과 더불어 발표된 家族計劃을 위한 社會支援施策과 1983년부터 여러 社會支援施策을 통한 한 자녀가족 권장의 영향으로 보인다.

人口政策이 人口變動에 미치는 영향이 이와 같이 至大하므로 人口變動 및 이와 관련된 出産力變動에 관하여 가능한 最新資料를 이용한 持續的인 研究의 必要性은 더욱 강조될 必要가 있으며 또한 먼저 人口轉換을 경험한 나라의 趨勢와 比較分析하여 政策立案에 참고하고 融通性 있는 政策方向을 제시할 必要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人口動態統計資料의 꾸준한 活用이 要求된다.

### 參 考 文 獻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人口動態統計(人口動態申告에 의한 集計), 1982~1986.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1970, 1975, 1980, 1985.

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 1986.

金柔敬, 崔仁鉉, “結婚力變動과 出産力”, 韓國의 出産力 變動과 展望,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金日炫, “韓國의 人口成長 推移와 展望”,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세미나,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李時伯, “韓國婦人의 出生間隔에 대한 分析”, 韓國의 出産力 變動과 展望,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趙南勳, “避妊實踐水準과 受容性”, 韓國의 出産力 變動과 展望,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 **Abstract**

### **Analysis of Fertility Trends in Korea Using Vital Statistics**

**Young-Ja Han\* · Hyun-Oak Kim\***

Demographic changes have occurred continuously in Korea due to the possibility of intentional birth control, which in turn brought about other general social changes. Human behaviour does not change easily, but once it begins to change, it is a continuous process. Fertility level changes lead to the changes in the number of population with some time lag. Therefore the projection of demographic change is very significant in itself, as well as for future social policy formulation.

The family planning programme which has been implemented for 25 years as a historical request for population control, has greatly contributed to fertility decline, along with socio-economic development. As a result the total fertility rate declined to 2.1, the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in 1985. Now at this moment it is very important to analyze the fertility trend which gives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 to demographic changes for population policy direction decisions and formulation of population policy measures.

In this article, the authors analyzed the changes in fertility from 1972 through 1985 using the vital statistical data published by the Economic Planning Board. The results are as follows;

a. Annual births tend recently to be concentrated to the mothers in their 20's. In 1972, 60.2percent of annual births occurred to mothers in their 20's and 36.3percent in their 30's and over. However, in 1985, 86.7percent of annual births were by mother's in their 20's and only 10.5percent in their 30's and over.

b. The proportion of lower birth order has been increased and the proportion of higher birth order has been decreased. The proportion of first birth order increased from 26.7percent in 1972 to 51.4percent in 1985, and that of second birth order increased from 23.7percent to 38.3percent during the same period.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both first and second

---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birth order increased from 50.4percent to 89.7percent during the same period.

c.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the lower birth order and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the higher birth order are common to all age groups of mothers.

These results mean that the fertility level became lower in general and these trends are remarkable in the 1980s. The fact that the proportion of the lower birth order is higher in Korea than that in China and Japan in 1985, shows an index to the future fertility trend. These phenomena are due to the successful family planning programme responding to the historical request for population control, to social support policy measures for family planning enacted at the end of 1981 in the line with the Fifth Five Yea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and to the one child family campaign beginning in 1983.

The impact of population policies on demographic changes is so great that the necessity of continued research on demographic changes and related fertility changes, has to be emphasized. In addition the comparative study with other countries which have already experienced demographic transition could give guidance to policy formulation and flexible policy direction.